「언어연구」, 제18권(2001), 25~36

어휘주의와 구성 성분: 형태소 '-대'

조 세 연
(호남대학교)

Cho, Sae-Youn. 2000. Lexicalism and Constituent: the morpheme '-tay'. *Linguistic Research* 18, 25-36. Following Bresnan & Mchombo (1995), some current syntactic theories such as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hold 'strong lexicalism' in treating the morphemes containing various kinds of apparent syntactic information. However, this strong lexicalism has caused numerous empir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analyzing some Korean morphemes. The morpheme '-tay' in Korean seems to be one of the problematic morpheme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Clausality and Argument Structures. In this paper, we provide a hybrid analysis of the morpheme '-tay' in Korean, after demonstrating several properties of the morpheme and reviewing well-known traditional analyses of it.

1. 서론

Bresnan & Mchombo(1995)에서 강 어휘주의(Strong Lexicalism)에 입각한 자연언어의 분석을 옹호한 이래, 핵어 중심 구 구조 문법 (HPSG)에서는 자연언어의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 강 어휘주의의 정신을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론정신의 기조는 형태소가 비교적 덜 발달된 영어와 같은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형태소가 매우 발달된 일본어의 사역형 형태소를 포함하는 문장 연구에서도 유지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1] 일본어와 언어현상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진 한국어 역시 강 어휘주의가 통사부의 주요한 정보를 갖는 형태소의 연구에서 잘 지켜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흥미로운 논제거리이다. 특히,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 (Minimalist Theory)이나 지배와 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을 포함하는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에서는 Baker(1988)의 이론을 바탕으로 약 어휘주의(Weak Lexicalism)를 표방하고 언어 분석에 임하는 경향은 두 문법의 단순한 차이 그 이상으로 반드시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우위가 규명되어야할 문제이라 하겠다.[2]

---

1 Iida et al.(1999) 참조

2 한국어의 시제나 문장종결어미에 관한 변형문법적 분석은 Yoon(1994) 참조.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형태소 '-대-'에 관한 핵어 중심 구 구조 문법하의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그 분석법에서 암시하는 어휘주의에 관한 함의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어의 형태소 '-*te*'와는 달리, 한국어 형태소 '-대'는 '-데'와 구분해 사용된다. 하나는 (1a)의 예문에서처럼 단순히 '-데'가 소위 과거 사건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1b)의 예문에서처럼 '-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논의의 편의상 전자를 회상시제의 형태소 '-데', 후자를 정보전달 (보고형) 형태소 종결어미 '-대'라고 칭한다.

(1) a. 영희가 잘 뛰데.
    b. 영희가 잘 뛴대.

본 논문에서는 (1b)의 예시에서 보인 정보전달 형태소 '-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형태소 '-대'의 음운론적, 통사적 및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 분석법을 제시한 후 각 분석법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본고에서 옹호하는 분석법이 어휘주의와 관련한 함의를 논의하려 한다.

2. 정보전달 형태소 '-대'의 특성

정보전달 형태소 '-대'는 언어학의 세부 분야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우선, 음운적으로 정보 형태소 '-대'는 그 형태소가 포함된 어휘가 서술문에서는 상승 성조(Rising Tone)를 갖는 반면, 회상시제의 형태소는 하락 성조(Falling Tone)를 갖는다. 둘째, 정보 형태소는 타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를 갖지만, 회상시제는 화자 자신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 기술한다. 예를 들면, (2a-b)에서처럼 정보전달 형태소 '-대'는 화자 자신을 제외한 타인이 말한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허용되지만, 화자가 그 주체로는 나타나지 못한다. 회상시제를 포함하는 술어는 의미적으로는 말하는 자나 주어진 상황의 경험자가 같지만 (3a)에서처럼 나타나서도 안되고 (3b)처럼 화자가 아닌 타인도 나타날 수가 없다.

(2) a. (철수가) 영희가 잘 뛴대.
    b. *내가 영희가 잘 뛴대.
(3) a. *내가 철수가 잘 뛰데.
    b. *철수가 영희가 잘 뛰데.

셋째, 정보전달 형태소를 포함하는 (4a)와 같은 문장에서 어떤 요소도 술어와 형태소 '-대'사이에 끼어 들지 못한다. 그러나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로 간주되는 '먹어 보다'의 경우는 (4b)에서처럼 '-만'과 같은 한정사(delimiter)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종속절 동사와 주절 동사간의 사이에는 (4c)에서처럼 한정사 뿐만 아니라 부사와 같은 타 요소도 나타날 수가 있다.

(4) a. 철수가 영희가 잘 뛴 (*-만, *자주) 대.
b. 철수가 소고기를 먹어 (-만, *자주) 보았다.
c. 철수가 남수가 바보라고 (-만, 자주) 생각한다.

넷째, 정보전달 형태소인 '-대'를 포함하는 문장은 (5)의 예문에서처럼 외관상은 단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은 '누가 그랬는데 무엇이라고 하더라'라는 복문의 구조를 갖는다.

(5) a. 영희가 예쁘대.
b. 영희가 (잘) 걷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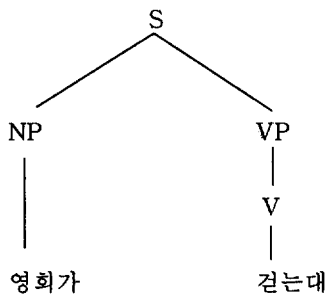
3. 형태소 '-대'를 포함하는 문장의 구조 분석법

3.1. 가능 분석법

상기한 정보전달 형태소 '-대'의 특성들 중에서 첫 번째의 음운적 특성은 제외하고 의미적 및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능 분석법은 대체로 단문 분석법(Mono-clausal Analysis)과 복문 분석법(Bi-clausal Analysis)이 가능한 듯하다. 우선 단문 분석법은 정보전달 형태소 '-대'를 포함하는 (6)과 같은 문장을 회상시제의 형태소와 구분하는 자질가(feature value)를 부여한 후, 그 문장의 구조를 (7)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6) 영희가 걷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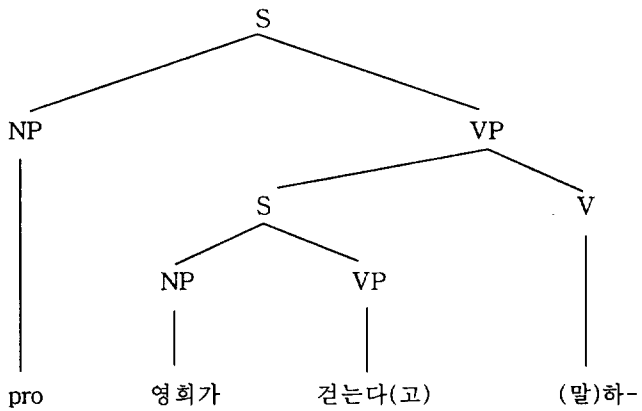
(7)



이러한 분석법은 당장 두 번째와 네 번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상세히 말하면, 정보전달 형태소 '-대'를 포함하는 술어인 '걷-'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를 1항 술어에서 2항 술어로 변환하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상기한 문장이 어떻게 복문의 의미를 갖게 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복문 분석법은 비교적 기존 변형문법하의 분석에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단문처럼 보이는 문장을 복문으로 (8)처럼 분석한다.

(8)



이 분석법은 우선 정보전달 형태소 '-대'와 회상시제 '-데'를 쉽게 구분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전자는 (8)과 같은 통사구조에서 축약에 의해 도출된 형태인 반면에 후자는 또 다른 기저형태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복문의 통사구조를 설정한 덕분에 그에 대응하는 문장의 의미를 복문의 의미로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과연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음운적으로 '걷는다(고)(말)하-'가 '걷는대'로의 축약이 한국의 음운 현상으로서 자연스럽고 생산적

인 것이냐 하는 문제와 문법의 어느 계층에서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도 설명되어야 한다. 비록 이 현상이 어휘형성 이후의 현상(postlexical phenomenon)이라 할지라도, 재귀대명사의 결속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환언하면, (9)에서처럼 어순 뒤섞기(Scrambling)가 일어난 후에 결속관계를 따져야 하는가 아니면 결속관계가 어순 뒤섞기 현상을 선행하는가 하는 규칙적용의 순서 문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배 결속 이론에서 어순 뒤섞기가 S-Structure에서 일어난 후 결속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과연 어순 뒤섞기가 S-Structure의 현상인지 또는 이러한 규칙간의 순서가 바람직한 것인지 따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9) a. 철수가$_i$ 영희가$_j$ 자기를$_{i,\ j}$ 비난했대.
b. 철수가$_i$ 자기를$_{i\neq j}$ 영희가$_j$ 비난했대.

또한 형태소 '-대'의 세 번째 특성인 어휘 결합성(Lexical Integrity)에 관한 분포양상(distributional behavior)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3.2 제안: 혼성 분석법(Hybrid Analysis)

본고에서는 상기한 가능 분석법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기보다는 통사적으로는 단문 분석법을 취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복문의 의미를 갖게 하는 절충안을 택하고자 한다. 이 분석법은 Bratt(1996)이 한국어의 사역형 동사를 분석할 때 사용한 것과 유사한 분석법이다. 우선 '술어 + 대'는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상 주어진 술어 자신의 논항과 '-대'가 갖는 주어를 결합하는 과정이 (10)처럼 어휘부(Lexicon)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이 경우 일종의 어휘규칙(Lexical Rule)을 설정할 수도 있고, 두 형태소의 논항 구조들의 결합(Argument Composition)으로 간주해도 결과의 차이는 없다고 본다. 더불어, 한국어의 내재 논항이 뒤섞기 규칙이 적용된 결과로 결합된다면 사격성 지시(o-command)에 의하여 (9)의 결속관계도 해결될 수가 있다.[3] 둘째, 의미부(Semantic Content)에서는 '걷는'의 의미를 (10a)처럼 그리고 '-대'의 의미를 (10b)처럼 설정하고 그 둘의 결합 결과를 (10c)처럼 기술하도록 한다.

3 한국어의 결속관계에 관한 HPSG내의 분석법은 Chung (1998) 참조.

(10) a.

$$\begin{bmatrix} \text{PHON} & \text{걷는} \\ \text{ARG-ST} & \langle \text{NP}_i \rangle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walk} \\ \text{ARG1} & [i] \end{bmatrix} \end{bmatrix}$$

b.

$$\begin{bmatrix} \text{PHON} & \text{대} \\ \text{ARG-ST} & \langle (\text{NP}_j), \text{V} \rangle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say} \\ \text{ARG1} & [j] \\ \text{ARG2} & \text{soa} \end{bmatrix} \end{bmatrix}$$

c.

$$\begin{bmatrix} \text{PHON} & \text{걷는대} \\ \text{ARG-ST} & \langle (\text{NP}_j),\ \text{NP}_i \rangle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say} & \\ \text{ARG1} & [j] & \\ \text{ARG2} & \text{soa} & \begin{bmatrix} \text{RELN} & \text{walk} \\ \text{ARG1} & [i] \end{bmatrix} \end{bmatrix}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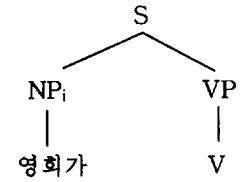
셋째, 정보전달 형태소 '-대'를 포함하는 술어가 언제나 그 정보전달자의 표지(Index) 값을 3인칭으로 한정하는 것은 (10b)의 자질구조에서 그 표지에 제약을 (10b')처럼 두면 1인칭이나 2인칭 등의 명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10b')

$$\begin{bmatrix} \text{PHON} & \text{대} \\ \text{ARG-ST} & \langle (\text{NP[PERSON 3rd]}_j), \text{V} \rangle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say} \\ \text{ARG1} & [j] \\ \text{ARG2} & \text{soa} \end{bmatrix} \end{bmatrix}$$

이러한 자질 명세(Feature Specification)는 정보전달 형태소 '-대'가 보여주는 통사 및 의미적 특성을 아래의 (11)에서 예시한 것처럼 설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1)



$$\begin{bmatrix} \text{PHON} & \text{걷는대} \\ \text{ARG-ST} & \langle (\text{NP}_j),\ \text{NP}_i \rangle \\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say} \\ \text{ARG1} & [j] \\ \text{ARG2} & \text{soa} \begin{bmatrix} \text{RELN} & \text{walk} \\ \text{ARG1} & [i] \end{bmatrix} \end{bmatrix} \end{bmatrix}$$

상기한 정보전달 형태소 '-대'에 관해 필요한 언어학적 정보가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가는 비교적 비 형식적(informal)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일반화하여 형식(formal)을 갖추어 제시하면 (12)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

(12)

$$\begin{bmatrix} \text{PHON} & f_{ct}\ ([1]) \\ \text{SUBJ} & [2]\langle (\text{NP}[\text{PERSON 3rd}]_j) \rangle \\ \text{COMP} & \langle [3]\text{V} \begin{bmatrix} \text{ARG-ST}[4] \\ \text{CONT}\ [5] \end{bmatrix} \rangle \\ \\ \text{ARG-ST} & [2] \oplus [4] \\ \text{CONT} & \begin{bmatrix} \text{RELN} & \text{say} \\ \text{ARG1} & [j] \\ \text{ARG2} & \text{soa}[5] \end{bmatrix} \end{bmatrix}$$

우선 (12)의 PHON(ology)의 값인 $f_{ct}([1])$은 만약 [1]이 '걷는-'이라면 이 함수의 결과는 '걷는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수(function)는 '-대'만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소인 '-단다'나 '-래' 등의 경우를 첨가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9] 또한 '-대'의 ARG-ST (Argument

Structure)의 값은 SUBJ(주어)와 COMP(보어)의 ARG-ST의 리스트 값을 합친(⊕, append) 것이다.

4. 형태소 '-대'의 분석법과 강 어휘주의

본고에서 제안한 혼성 분석법은 핵어 중심 구 구조 문법이 지향하는 강 어휘주의를 지키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전달 형태소 '-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 단문 분석법의 단점을 복문 분석법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고 한국어의 사역 동사화 형태소인 '-이-/-히-' 따위의 분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13)과 (14)의 예문과 같은 접속구문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역형 형태소 '-이-'를 포함하는 술어인 '먹이었다'는 예문 (13)의 접속구문에서 선행하는 등위절의 술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비문으로 판정된다. 반면에 정보전달형 형태소 '-대'를 포함하는 (14)의 술어 '예쁘대'는 선행하는 등위절의 술어에 영향을 미쳐 정문으로 판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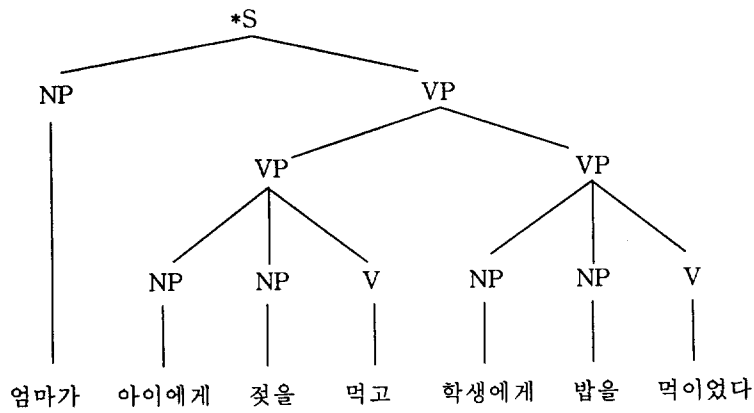
(13)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고 그 학생에게 밥을 먹이었다.
(14) 철수는 영희가 예쁘고 남수는 순자가 예쁘대.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는 정보전달형 형태소 '-대'에 관한 본고에서 제안한 혼성 분석법의 타당성을 의심케 한다. 만약 '-대'를 분석할 때 혼성 분석법을 택하고 약 어휘주의의 입장을 취한다면, (13)과 (14)사이의 문법성의 차이는 (15)와 (16)의 수형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13)의 사역형 형태소 '-이-'와 같은 형태소는 Bratt(1996)처럼 강 어휘주의를 채택하고 단문 분석법을 적용하며, (14)의 형태소 '-대'는 비록 항가(valence)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형태소이지만 독립적인 하나의 어휘로 분리하여 약 어휘주의를 채택한다면 두 문장간의 문법성 차이는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자연히 따라나오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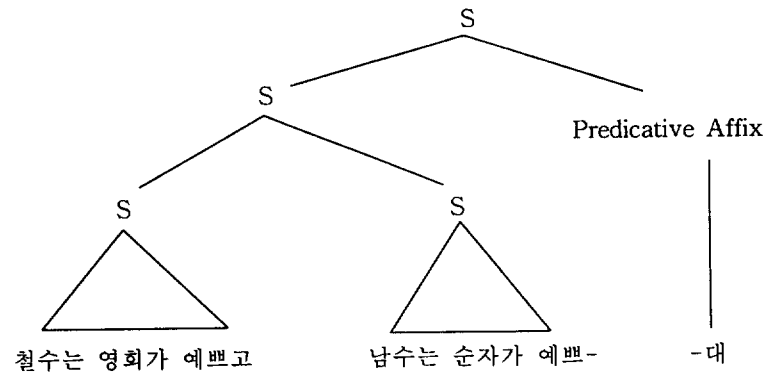
---

4 정보전달 형태소중 하나인 '-단다'는 '-대'와는 전자의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attitude)에서 그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 HPSG의 CONTEXT내에서 그 의미적 차이를 기술할 수가 있다.

(15)



(16)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접속문인 예문 (16)의 경우, '-대'는 비록 술어 기능을 하는 접사로 취급하고 있지만 과연 비변형문법내에서 구성성분 통어(c-command)만을 한다고 각 접속 구 또는 절의 항가를 늘이는 것까지 허가하는가 하는 문제는 접속문내의 시제 형태소의 공유와는 다른 문제로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환언하면, 각 접속 절의 주어인 '철수'와 '남수'가 생성되는 것을 인가해 주는 것은 술어 접사인 '-대'인데 왜 그것이 국부성을 어기고도 인허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려면, 원래 '-대'가 각 접속 문에 존재하다가 ATB(Across The Board)로 움직여 나갔다거나 Gapping이 되었다고 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우선 Gapping의 경우로 분석하는 경우는 Gapping되는 부분이 구성성분을 이루어야 하는데 과연 '-다고 (말)하-'가 한국어에서 하나의 구성성분을 언제나 이루느냐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또한 ATB로 움직여 나간 경우 역시 그 동기가 석연치 않다. 특히 두 대안이 모두 사역형 형태소인 '-이/히

-'와는 '-대'가 어떻게 다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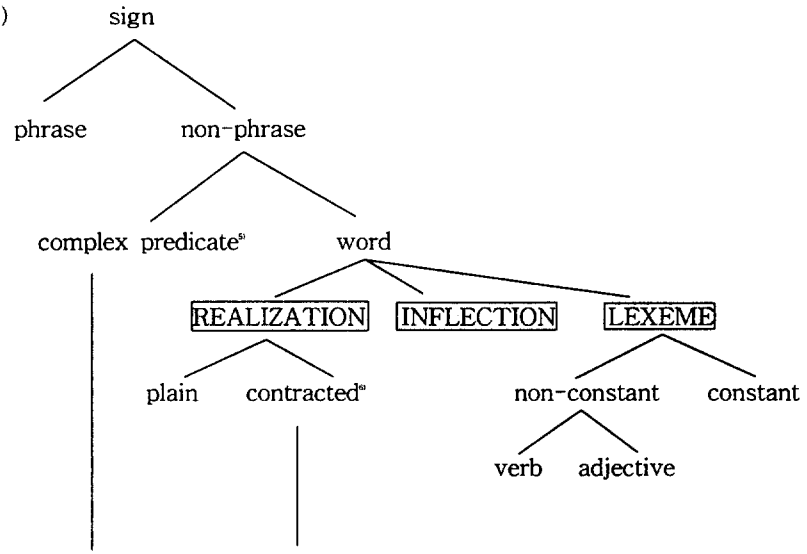
사실 접사 분석법(Affix Analysis)은 한국어의 시제가 접속 구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제 구(Tense Phrase)를 설정하여 양 접속 구를 통어케 하여 그 영역을 미치게 하였다. 즉 예문 (17-18)의 경우 과거시제는 전반부의 접속 구에 의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시제 구를 수형도에서 상위에 설정하여 그 영향권을 설명해 온 것이 접사 분석법의 통사적 동기였던 것이다.

(17) 영희가 예쁘고 아름다웠다.
(18) 영희가 옛날에는 테니스도 잘 치고 잠도 잘 잤다.

그러나 이러한 굴절 접사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전달 형태소는 항가를 증가시키는 사역형 형태소와 유사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강 어휘주의를 견지하면서 상기한 문장을 설명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래와 같은 HPSG내의 기호(sign)에 관한 위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19)



5 복합 술어사이에 한정사가 나타날 수 있는 테스트에 관한 사항은 Sells(1991) 참조.
6 본 contracted type은 다시 항가를 증가시키는 것과 변동이 없는 하위타입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다음의 연구로 남긴다.

상기한 위계에서 일반 복문의 경우에 종속절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사이에 여타의 구성성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순 뒤섞기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복합술어의 경우 '-만'과 같은 한정사가 나타나는 것은 non-phrase내의 complex predicate 타입의 현상으로 보며, 어떤 요소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어휘적 특성으로 보아 (19)처럼 위계를 설정한다면 '-대'의 특성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겠다. 또한 Gapping의 가능여부는 word 타입의 REALIZATION이란 차원(dimension)내에서 사역형을 포함하는 plain type은 Gapping이 불가하고 contracted type은 가능한 것으로 보면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다. 만약 HPSG내에서 Gapping 외의 분석법을 추구한다면, 상기한 위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속구문 원리(Coordination Principle)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7]

5. 결언

본고는 정보전달 형태소 '-대'의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서 혼성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단문에서는 비교적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 이 분석법이 접속문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논의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HPSG가 지키려는 강 어휘주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어휘결합성을 견지하면서도 형태소 '-대'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본 연구가 접속문을 포함하는 술어의 형태소에 관한 부분에서는 개괄적 분석으로 마무리 짓고 더 자세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로 넘겼지만,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확연하다.

자연언어의 연구를 위한 이론이나 그 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많은 방법론은 그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수많은 자연언어의 수를 고려할 때, 몇몇 언어의 적용에서 성공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그 방법론이 또 다른 언어에도 올바른 방법론이란 생각은 논리적 비약이다. 물론 한 두 개의 구문에서 설명의 어려움이 그 전체의 이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한국어에서 강 어휘주의와 약 어휘주의의 한쪽 노선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경험적 타당성을 추구할 때이다. 본고의 전달형태소 '-대'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언어 연구 방법론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

7 한국어의 접속구문에 관한 최근 분석은 대략 Yi(1994)와 Kim(1995)의 부가어 구문 분석법과 Cho(1995)의 부가어 구문과 접속 구문의 중의성을 갖는다고 보는 분석법으로 크게 구분된다.

참고문헌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att, E.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Bresnan, J. and S. Mchombo. 1995. The Lexical Integrity Principle: Evidence from Bantu.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181-254.

Cho, S.-Y. 1995. Untensed Phrases in Korean Verbal Coordinatio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ass: MIT Press.

Chung, C. 1998. Argument Composition and Long-Distance Scrambling in Korean: An Extension of the Complex Predicate Analysis. In *Syntax and Semantics 30: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Academic Press.

Manning, C., I. Sag, and M. Iida. 1999. The Lexical Integrity of Japanese Causatives. In Levine and Green (eds.) *Studies in Contemporary Phrase Structure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llard, C. and I.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Kim, J.-B. 1995. On the Existence of NegP in Korea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I*.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Sells, P. 1991. Complex Predicates and Argument Structure in Korea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 Seoul: HanShin.

Yi, E.-Y. 1994. Adjunction, Coordination and Their Theoretical Consequences. Paper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University of London.

Yoon, J. 1994. Korean Verbal Inflection and Checking Theory.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Vol. 22 of MITWPL*. 251-2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과
E-mail: sycho@honam.honam.ac.kr
전화: +82-062-940-5316

접수일자: 2월 3일
게재일자: 4월 5일